

#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2023. 4. 14. (금)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회의 개요

◆ 일 시 : '23.4.14.(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12층 회의실

◆ 참 석 (정책자문위원 11명, 서울시 7명)

- 총괄 분야(4)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규,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 이소라
- 외로움 분야(1) :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숙미
- 건강 분야(2) :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재헌, 숭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교수 정희영
- 안전 분야(1)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휘
- 현장 분야(1) :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변주수
- 청년 분야(2) : 에텐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박우순  
스마트콘 전략사업부 매니저 조건희
- 당연직 위원(1)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서울시(2) :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1인가구정책팀장 전소현

◆ 안 건

-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안)
- 탄생프로젝트 청년 사랑응원 프로그램(안)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은 비공개
- 1인가구 지원사업 종합 홍보리플릿(안)

○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정책팀장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규 청년 위원으로 두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신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오늘 안전인 2023년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1인가구 지원사업 종합 홍보리플릿(안)에 대해서 1인가구담당관께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회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숙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 복지학과 교수 정희영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변주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교수 강제현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규 위촉되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박우순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위원님께서선 앞선 일정이 있어 30분 후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 ○

- 짧게 한 말씀 하시죠.

○ ○ ○ ○

- 일단 저번 위촉식 1차 회의 때 참석 못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서울시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로 거주한 지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1인가구 청년 당사자이다 보니 청년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실제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 1인가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7%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또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함이라든지 필요한 정책들이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정책 발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신규 위촉되신 ○○○과 ○○○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님, 부탁드립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 위원으로 위촉된 ○○○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기까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들이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여된 역할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일단은 제가 학창시절 학급위원 이후로 자문위원이라는 굉장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조금 부담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가 굉장히 비중도 높고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나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게, 스며들 수 있게 제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 ○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날이 좀 풀리면서 바빠지신 것 같은데,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인가구 정책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익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두어 가지 상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께서 오늘 안건 설명을 해 주시죠.

○ ○ ○ ○

- 1인가구담당관 ○○○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안), 1인가구 지원사업 종합 홍보리플릿에 대한 안건입니다.
- 먼저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은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종합

계획은 4대 안심분야 8개 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안심분야는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분야로 세분화하여 현재 27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은 회의자료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2023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0쪽입니다. 추진 방향은 2022년 성과와 수요를 토대로 1인가구의 불편 해소, 불안해소, 불만완화 등 3불(不) 해소를 통해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3대 분야 7대과제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핵심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11쪽, 순서대로 제목과 배경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입니다. 병원 이용과 퇴원 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그리고 퇴원 후 일상회복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입니다. 내 집 찾기 어려운 1인가구에게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쪽입니다. 1인가구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스마트밴드·앱 보급, 건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매니저 상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입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건강 취약 1인가구 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다섯 번째는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운영입니다. 최근에 가장 취약 계층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또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 여섯 번째는 1인가구 썩글병글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중장년들의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 다음 쪽입니다.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 15개소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 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 내에 안심보안관을 배치·운영하여 심야 시간대 주거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여덟 번째로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홉 번째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주거 안심 구역 등 안전 취약 지역의 가로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고화질 CCTV 확대입니다. 1인가구 밀집 지역, 골목길 등에 CCTV를 2023년도에 619개소, 2,477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16쪽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범죄 취약지 및 주민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서울시내 4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열두 번째,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운영입니다. 안심이 앱을 켜고 택시 이용 시 택시 승하차 정보가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 열세 번째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초인종이나 무선 비상벨, 스토킹 범죄 피해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심택배함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 지역 또는 다세대 주택가 등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 열여섯 번째로 AI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열일곱 번째로 생명이음청진기 확대 및 우울 고위험군 검진 제공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외로움과 우울에 대해 주민 밀착 의료기관 활용을 통하여 밀착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등 고위험군을 지속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열여덟 번째로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입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해서 사회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20쪽입니다. 유희 공간을 활용한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내 유희 공간에 휴식이나 만남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사회관계 형성의 장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스무 번째, 1인가구 경제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입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경제 교육, 즉 재무 교육과 부채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행일자리 1인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안심일자리 참여자의 20% 정도를 1인가구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스물한 번째로 1인가구 관계망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1인가구 증가에 맞춰서 180여 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25개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물두 번째로 세대 통합형 모델 개발·공급입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해서 주거 모델을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주택 공급을 1인가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스물세 번째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아무래도 청년주택이 역세권에 인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로 19세에서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 스물네 번째입니다. 청년 매입공공주택의 확대입니다.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2023년도에 2,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스물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1인가구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스물여섯 번째로 1인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입니다. 1인가구 대상 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3,000여 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6개 세부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쪽에 놓여 있는 1인가구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두 가지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한 의견, 제언이 있으시면 많은 관심과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죠.

○ ○ ○ ○

- 질문이 있는데 16쪽에 2-3-5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이니지(안내판)” 이게

될 얘기하는 건가요? 2-3-5에 센서등이나 LED 조명 이런 것은 알겠는데 사이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냥 안내판만 부착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기에 경찰을 콜(call)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인지…….

○ ○ ○ ○

- 가로등 같은 데 보시면 '비상시에 누르십시오.' 이런 것이라든가 가로등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 ○ ○ ○

-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고 누가 쫓아온다고 그러면 눌러서 경찰이 연결돼서 딱 올 수가 있는 건가요?

○ ○ ○ ○

- 네, 그런 것을 비롯한 안내판 종류들을,

○ ○ ○ ○

- 아, 안내판 종류를…….

○ ○ ○ ○

- 경찰하고 연계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 ○ ○

- 경찰하고 연계가 안 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외국은 군데군데 약간 우리 허리 높이 정도로 해서 그게 표시가 돼서 이것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 ○ ○ ○

-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안심장비라든가 보안관이나 다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거나 또는 장비의 호출을 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기(既) 구축해 놓았어요.

○ ○ ○ ○

-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 말씀 하시죠. 아무래도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와 주셨으니까 한말씀…….

○ ○ ○ ○

- 열심히 잘하라는…….

○ ○ ○ ○

- 특히 ○○○은 사회복지계에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 감사합니다.

○ ○ ○ ○

- 사실 1인가구가 지금 36%를 넘었는데 제일 문제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가구의 제일 문제는 식습관이 진짜 엉망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생각보다 적고, 이런 것에 비하면 '0'이 한두 개가 적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 늘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계획을 다 한 것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예전에는 많이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도 돈을 조금 더 내고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일부 빼놓고는 막았답니다. 왜 막았냐고 그랬더니 직원들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지 외부 판매업으로 하는 것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 ○ ○

- 그 인근,

○ ○ ○ ○

- 상권에서도 클레임이 있고.

○ ○ ○ ○

- 네, 음식 하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큼니다.

○ ○ ○ ○

- 외식하는 것보다 구내식당이 훨씬 건강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어서 이런 인프라를 법이나 조례로 잘 풀어서 활용을 하면 구내식당도 규모의 경제가 되고, 실제로 그런 식당을 늘리는 것이 1인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 마지막으로 생명이음청진기 확대를, 사실 환자들은 정신과에 안 가려고 그리고 보내도 안 갑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을 베이스로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아이디어 같고 이 부분을 잘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 ○

- 특히 어르신 취약 계층 대상으로는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경로식당은 11시 반이나 돼야 오픈을 하는데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통도 이루어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식사 문제가 참……. 취약계층 위주로 일부 복지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좀 확대되다 보면, 지금은 관공서에 있는 구내식당을 막았거든요. 관련 법령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요.

○ ○ ○ ○

-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자치경찰협력과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자치경찰하고 1인가구하고 따로따로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 여기 사업을 3개 지역으로 해서 목표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3개 지역은 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순히 시설물 설치로만 끝내지 말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식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물리적인 시설 개선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적인 것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가구 사업을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는 것도, 집중을 해 보는 것도 안착하는 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안심장비 지원 중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 됐던 것을 털어내고 몇 개만 선정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 ○ ○ ○

- 말씀들 더 주시죠.

○ ○ ○ ○

- 16페이지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에서 택시에 승하차 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알림이 가는 건가요?

○ ○ ○ ○

- 본인이 지정한 분.

○ ○ ○ ○

- 아무나 다 지정할 수 있나요?

○ ○ ○ ○

- 친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엄마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 ○ ○ ○

- 원래 1인가구가 다양해서 정책이 굉장히 종합적이었는데 ○○○이 맡고 나서 더 붙어서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도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직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사업의 숫자가 좀 많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에는 약간 파일럿 성격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쯤은 사업별로 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지도나, 만족도나, 체감도나, 효과나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집행 체계가 시(市)도 다른 부서를 거치고 구청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이래서요.
-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택시 승하차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요즘은 길에 가는 택시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카카오 앱이 이용자 비율의 거의 ○○%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타 보니까 카카오 앱에 그게 있어요. 호출을 하는 게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보니까 사용자가 ○○○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민간 쪽에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 다른 것도 효과가 좋은 것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하高的 협력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물량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지금은 다 재정사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 자립 교육도 1년에 ○○○명인데 만족도는 괜찮다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시에서 다 한다기보다는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CCTV를 확대도 하고 교체도 하는데 교체가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이런 지역들은 일단 CCTV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기에 설치하면 순시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 ○ ○

-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요.

○ ○ ○ ○

-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 ○ ○ ○

- AI 안부 확인 있잖아요. 이진 어때요? 인기가 좀 있나요?

○ ○ ○ ○

-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복지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우리도 추진을 했다가 복지부서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전화가 오면 AI 목소리에 피싱이나 이런 것을,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은 AI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이 다 방문하면 좋은데 방문이 안 되니까 AI나 다른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 ○ ○ ○

- 지난번에 무슨 AI 인형을 드렸었죠.

○ ○ ○ ○

- AI 인형하고 할머니들이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대화는,

○ ○ ○ ○

- 그 기술 수준이 디지털 발전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용될 때 보면 어떤 경우는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인형이 그 얘기만 하니까 어떤 분은 분리불안 같은 것도 생기는데 얘가 치매를 악화시키더라고요.

○ ○ ○ ○

- 아, 그래요?

○ ○ ○ ○

- 그런 경향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AI 관련된 것은 디지털정책과 밀에 전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석을 시켜서 이쪽 얘기를 같이 듣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그런 기업도 자기가 이런 것을 고쳐서 인지도를 더 높이고 소득도 높이고 싶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줘서, 그

런데 디지털 쪽 사람들이 해 줘야 좋죠. 사회보장위원회에도 디지털 쪽 관련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건의를 했거든요.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 복지 쪽에서의 이슈가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의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복지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빅데이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이런 것은 사실 복지 쪽에 엄청나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애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걸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디지털로 어떻게 풀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을 알 것이니까 그쪽 파트랑 친해야 될 것 같아요.

○ ○ ○ ○

- ○ ○ ○ 말씀대로 ChatGPT 같은 게 거기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요.

○ ○ ○ ○

- 지금 기술적으로 인형에다 뭘 박아서 나누어 주고 그걸로 딱 손을 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 수준을 내가 물어봤더니 정말 저급한 수준이에요.

○ ○ ○ ○

- 네, 날씨 물어보고 이런 정도.

○ ○ ○ ○

- 저급한 수준이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런대니까 그 부분을, 여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대단한 기술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터치하면 반응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

- 저희 ○ ○ ○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는 복지학 박사가 없어서 환경공학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 시하고 관계없이 자치구가 10개 정도 개별적으로 했고, 업체가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3개 정도는 ‘그럭저럭 쓸 만하다’, 1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나마 사용하다가 적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럭저럭 만족도가 나오고, 대체적으로는 ‘사용 기능이 불편하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지겹다고 그래요. ‘몇 번 하고 나면 스토리가 그냥 다 그래서 싫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AS도 안 되고, 현장관리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기타 등등 여기에서 생기는 불평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TV를 이용해서 아까 AI 전화하는 것을 TV에 자

기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영상을 찍어서 들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AI 휴먼 서비스로 해서 동영상으로 비슷하게 아바타처럼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잘 밀어주시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급 확대하려고 쓰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 ○

-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 ○ ○ ○

- 네.

○ ○ ○ ○

- 작년에 제가 와서 이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서비스 신청하신 1인가구가 기대하는 수준하고 AI 전화하는 이 친구가 하는 수준하고 갭이 좀 큰 거예요. 갭이 크고, 그냥 그 정도면 굳이 우리가 AI 안부 전화 서비스라고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어서요. 27쪽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 일부는 사업을 종료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AI를 활용한 생활관리 서비스 이것을 복지정책실의 안심돌봄복지과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자료나 이런 것을 다 드리고 그쪽 과에서 하도록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1인가구 세대 통합형 주택 공급도 저희가 용역까지는 했는데 그 땅에 집을 짓는 부분은 우리 1인가구에서는 할 여력이 없다, 할 능력도 없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주택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끌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 결과도 보내드렸고, 설명도 했고,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AI를 활용한 생활 관리 서비스도 저희가 했을 때 장점, 또 부족한 점, 가구들이 실제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반영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위원님들 한말씀씩……. 처음에 말씀하시라고 하면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좀 익히려구요.

○ ○ ○ ○

- 제가 한 8년간 자취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됐을 때 아까 ○○○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먹거리가 참 많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식습관이 많이 불규칙하게 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습관에 불균형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인가구로 있을 때도 정책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제 생활 패턴대로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청년 1인가구에게 밥상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나 일반 가게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단가를 싸게 하는 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 ○ ○ ○

- 사실 저도 자취한 지 3년 정도 정도 돼서 ○○○과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저는 아직도 식습관이 정립이 안 돼서 먹거리 그런 것도 그렇고, 1인가구들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저는 사실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처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점에는 중장년층 가구들 위주여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확실히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세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 ○

- 그러면 보고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 다음 1(안), 2(안)을 보시라고 드렸는데 여기에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게 내용은 비슷한 것 같고 컬러링만 좀 다른 거죠? 눈에 보기에 뭐가 시원 하냐, 그거 골라 봐라, 그 말씀이신 거죠? 어떤 게 좀 더 들어와요?

○ ○ ○ ○

- 저는 1(안).

○ ○ ○ ○

- 나는 2(안)인데, 왜 2(안)이냐면 일단 노란색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2(안)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중요한 내용이 노란색 글씨로 표시돼서 눈에 잘 들어오  
고요. 그다음에 1(안)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밑에 그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울 도심 이런 것이 바탕색이 진하다 보니까, 바탕색이 약간 흐리면 그게 더 확 들어  
오는데 그래서 2(안)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고 1(안)은 따뜻해 보이고 그런 것 같습  
니다.

○ ○ ○ ○

- 2(안)은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요?

○ ○ ○ ○

- MZ세대에 가까운 두 분 말씀을 들어보죠.

○ ○ ○ ○

- 저도 2(안)인데요, 보게 되었을 때 눈에 확 띄는 느낌을 받아서 2(안)을…….

○ ○ ○ ○

- ○○○도 한 말씀 하시죠.

○ ○ ○ ○

- 저는 같은 이유로 1(안)을 골랐는데요, 한눈에 사로잡는 것이 홍보물의 가장 큰 부분  
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컬러가 화사한 1(안)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 ○ ○ ○

- 이런 것을 대강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정하게 하시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 ○ ○ ○

- 알겠습니다.

○ ○ ○ ○

- ○○○ 고심하고 계신데요.

○ ○ ○ ○

- 이렇게 놓고 보니까 ○○○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 ○ ○ ○

- 어쨌든 고생하고 있는 ○○○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 ○ ○ ○

- 오늘 말씀주셨던 사항들 중에 AI 안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하

면 좋겠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범죄 예방 디자인 조성하는 시설물을 할 때 지역에 대해서 저희 안심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도,

○ ○ ○ ○

-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됩니다.

○ ○ ○ ○

-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업 하면서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께서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효과를 측정하면서 이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1인가구추진단을 만드셨고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시고 지난해부터 1인가구 관련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들한테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신규 사업은 예컨대 지난 연말에 회의할 때 중장년 중에 진짜로 밥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어려운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반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현장의 좋은 의견 많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오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와서 참고할 만한 항목이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뵙는 것으로 하시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